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사람을 얻는 삶이 되자!

WINNING
HEARTS OF PEOPLE

¹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¹⁹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²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²¹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²²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²³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²⁴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전 9:18-24]

1부 중보기도 : 행정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0:50am-11:20am, 본당)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1. 살아 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2. 긍휼하신 아버지! 귀가 있어도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3.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견지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한까지 절제했던 바울처럼, 예배를 드리는 성도마다 복음을 위해 헌신을 자원하게 하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5. 매주 새가족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6.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천상유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 37:4]

1. 찬양팀과 율동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3.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이창석목사님, 김현철목사님, 이정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수웅장로님, 신장섭장로님, 송금관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러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19]

1. 주일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때마침 심령이 살아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며,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 “**사람을 얻는 삶이 되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4.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5.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이 밟는 땅마다 은혜의 샘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여름 성령집회 - 새롭고 뜨거운 신앙(강사: 이경은 목사)

7/8(목)~7/11(주일)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3.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주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덮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4.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의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5. 하늘소망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3.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깊은 영감을 얻게 하옵소서.
4. 자기애적인 삶을 벗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감으로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5.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을 만지셔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6.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1.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자마다 일터와 삶에 복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여호와께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절)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앞으로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 일천번제를 통해 골방예배가 매일 훈련되게 하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3차}일천번제,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현장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3.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5.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며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구별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리더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7. VBS 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수련회(7/22-25), 대학부 수련회(8/5-8) 및 교육부 예배와 여름 프로그램 가운데 기쁨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8. Jesus' Light 자녀들도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5-16) 말씀에 의지하여, 환우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병애를 하루 속히 벗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육신과 정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간병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뉘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성령님을 힘입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3.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4. 선교지에서도 '일천번제'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필요마다 채워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5. 선교지의 현지교회와 사역자들이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적 대추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태국어 습득을 위해/ 9월 비자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순회 문화 사역을 통한 복음전파 • 김인수 선교사님(필리핀) 모든 지교회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수레 100 호점을 위하여/채워주심의 은혜 • 박 선교사님(네팔) 일용직종사자 등 불가촉천민들의 생활고 개선되도록/ 정치적 안정/ 선교사 가정의 안전과 건강/ 물자 공급이 원활하도록/ 백신 공급이 원활하도록 	<p>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 사태 진정과 인권 유린 및 살상을 그쳐지도록 • 고난 당하는 가정 위해, 떡을 것 조차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끝나도록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 김도현 선교사님(베네주엘라) 6/28-온라인 신학교 강의 (다니엘서) 및 모든 온라인 사역/ 한국에 계신 부친의 건강과 형님의 영혼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직 선교사님(C 국)- 심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하시도록 • 네팔 이예신 선교사님- 혈액암으로 아직 투병 중이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검진겸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님- 5월 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 터키 양창모 선교사님-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님-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 사할린 김지경 선교사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알타이 최정진 선교사님- 2차 백신 접종 후 더 불편해진 다리, 튼튼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천병기 목사님 부부와 은성식 목사님 부부- 회복을 위해 • 주선민 선교사님(러시아)- 딸 세아(9세) 왼쪽 다리 연장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성대의 물혹이 없어지도록, 발목이 회복되도록 • 박경덕 선교사님(태국)- 안구건조증



1. 오는 6월 25일은 한국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숨 다해 고국을 지켜준 미국과 UN 참전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 한국전쟁참전국: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이상 파병된 군인 수 순)
2. 코비드-19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소서.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미국과 세계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 경제, 산업,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활동이 속히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3. 2021 JAMA 중보기도 영적 대각성 부흥회(7월 26일-8월 7일)에 수많은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강력한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마다 도시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IPCJAMAGLOBAL.COM
4. 5월에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심장박동법이라 불리는 낙태제한 법에 서명함으로 심장박동이 시작되는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연방 대법원이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시키는 미시시피 주의 낙태 제한 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법들이 모든 주에서 실시되게 하옵소서.

미 의회, 터키 기독교인들 위한 종교 자유 법안 통과 계획 중: 미국 의회에서 박해 받는 터키 기독교인들을 위한 종교 자유에 관한 법안인 ‘터키와 세계 총대주교회의의 종교 자유 감시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이 법은 터키 정부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 정부가 이를 위해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결에 앞서 몇 주 동안 더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터키 개신교회협회의 최근 연례 보고서는 터키 내 기독교인들의 상태와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조명했다. 터키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가 예배 목적의 건물을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해, 모임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침례교 연차 총회, 인종 간 화해 해답은 오직 “성경”: 미국 남침례교(SBC)가 최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인종적 화해에 대한 해답은 다른 이론이 아닌 성경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 상원 의원, 좌파 ‘우오크’ 운동 맞서 “잠든 교회 깨어나야”: 미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소위 차별반대 각성 운동인 ‘우오크(Woke)’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교회가 깨어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크루즈 상원 의원은 18일 전미 복음주의 시민사회 단체인 신앙과자유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이 플로리다 키시미에서 개최한 ‘다수로 가는 여정(Road to Majority)’ 연례 회의에서 미국의 수호를 위해 교회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연설했다.

얼
방

- MZ세대 ‘남혐’, ‘여혐’ 젠더 갈등 위험 수준
- 브라질 인니 태국, 코로나19 확산 심각
- 유엔, ‘살인적 폭염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경고
- 한국교회,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6.25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 방글라데시 교회와 소수종교, 이슬람 국교회 수정 헌법 반대 시위
- 나이지리아, 무장괴한 급습... 학생 교사 약 100명 납치(학생들의 부모에게 14만 달러 요구)
- 중국, 반체제 인사들 재판 없이 구금하는 사례 늘어
- 내전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서 공습... 수십명 사망
- “북에 생존한 국군포로 100명 추정... 정부는 송환촉구해야” 샬롬나비 성명
- 알제리, 박해 속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자 크게 증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VBS 여름 성경학교에 355 명의 어린 자녀들이 참여해서 즐거워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게 되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은혜 받는 모습에 우리 교역자들과 부모들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며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손자 선교도 VBS 참석해서 은혜 받고 좋아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요. 저는 목요일 저녁 VBS 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 교역자들 위해 축복기도 해주며 감사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영접하고 성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온가족들이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중고등부, 대학부에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25 일 금요일은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 잊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한반도는 무려 3년 동안 전쟁으로 완전 폐허되고 엄청난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한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함 60만 9천명, 북한군 80만 명, 유엔군 54만 6천명 민간인은 100만 명도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정권이 일방적으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공산화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군이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하므로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시각으로, 신앙의 눈으로 6.25 전쟁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것은 한국민족을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를 성장시키셔서 세계선교의 기적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인구비율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특별히 미국과 유엔군 참전 국가들의 희생적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시며 일천번제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할 때,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한 그 젊은 관원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물질을 놓지 못해서 근심을 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 19:23-30)

그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근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다 순종하고 따라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 뺨을 때릴 때 왼 뺨을 내밀라는 말씀은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맞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목적을 알아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뜻은 우리가 가진 어쭙잖은 나의 목적, 꿈에 대하여 죽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죽고 또한 나의 능력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성미나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에 대하여도 죽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는 분량만큼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이요, 성령충만하므로 주님의 평강과 기쁨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충만한 그 때만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내가 성령충만할 때에 그 분이 내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쭙잖은 “나”를 죽이고 성령충만을 유지하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팬인가 제자인가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셔츠를 벽에 걸어 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맘을 뽀뽀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향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 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 카일 아이들만, "팬인가, 제자인가(Not a fan)" 두란노"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이런 스승이 되자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웬일인지 독일군이 이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로 가 학생 중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독일군의 모습을 본, 가슴에 별을 단 유대인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란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대인 어린이들을 두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팔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거야."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서며, "가만 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하며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트레몰렌카의 가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꼬옥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 뜰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